

## 18대 대선후보 분석

박근혜-문재인 대선공약 비교

## 대통령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 도입 vs 비리수사처 신설

18대 대선구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 자대결로 압축되면서 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두 후보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으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각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정치 쇄신=두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 중앙 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나란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국회의원 공전 국민참여경선 공통분모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선 상당한 이견이 있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 박 후보는 의원연금 폐지와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등을 약속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부수석에도 문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의 100명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박 후보는 의원직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의 친인척·족근비리 극복책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차별화된다. 박 후보는 현재의 제도특검을 보완해 상설특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 친인척·족근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상대적으로 더 과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쇄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4년 중 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민주화=두 후보 모두 양극화 심화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박·문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출 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재벌개혁 문제로 들어가면 박·문 후보의 입장이 엇갈린다.

박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신규'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자총

액제한제(출총제) 부활에도 부정적이다. 사실상 재벌의 협행 지배구조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주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축소 등을 함께 약속했다.

◇일자리문제=박 후보는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근무·고용형태를 의미하는 스마트 워크 정책으로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공약집의 첫 과제로 일자리혁명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 ■ 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비교

구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정치쇄신	·국회의원 공천 국민 참여경선 ·국회의원 특권 축소 ·상설특검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공청권 국민에게 활원 ·국회의원 특권 축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경제민주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부정적 ·금산분리 강화	·기준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10대 대기업집단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강화 ·재벌법적 국민총여재판
대북정책	·신뢰 프로세스로 관계 정상화 ·북한인권법 적극 천성 ·한·미·중 3자 전략대화로 북핵문제 해결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 체결 ·대북지원 통해 북한인권 개선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 ·2013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복지	·0~5세 무상보육 ·4대 증정질한 100% 국가가 책임 ·월 20만 노인연금 ·한부모기자녀내수당비 지원금 인상	·0~5세 무상보육 ·연간 흥미·분야별 100만원 상한제 ·기초연령금 배려로 인상 ·어동수당 지급
교육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선행학습유발 시험 금지 ·고교 무상교육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금으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초등학생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 금지 ·고교 무상교육 ·국립대학 2013년, 사립대 2014년 반값 등록금 면면실시

## 재벌 순환출자 신규만 금지 vs 전면금지

## 일자리 스마트 워크 정책 vs 일자리청 신설

## 북핵문제 한미중 대화 vs 6자회담 해결

## 복지·교육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 동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청(廳)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 강화·기계부채 해결=복지 국가는 박·문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분야다. 기본적으로 0~5세 유아 무상보육 또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에서 두 후보 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 분야의 경우 박 후보가 월 20만 원의 노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을 약속해 법론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해법에서도 박·문 후보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

정체권추심법 등 3개 법안을 제·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두 후보 모두 협정부가 추진했던 비핵개방 3000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에 비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한 만큼 남북 간 교류협력이 현재보다 증대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문 후보는 경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기로 했고,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1인당 3만달러 국

민소득과 인구 8000만 시대를 약속했다.

◇교육·여성 정책=두 후보의 교육 정책은 공통으로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와 문 후보의 아동교육 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일률 후 사교육 금지 방안 등은 이런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여성정책 부문에선 박 후보는 2017년까지 여성연령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관직·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아버지들의 육아·보육 참여 방안 마련이나 무상보육 확대 등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대선후보 7명 등록

제18대 대통령선거 등록 마감일인 26일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김순자, 무소속 강지원.

/연합뉴스

## 재산 박근혜 21억, 문재인 12억, 이정희 5억

## 납세 朴 1억3천만원, 文 1억2천만원, 朴 1억

## ■ 18대 대선후보 재산·납세액

18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6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를 종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날 현재 등록을 마친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등 7명이다.

무소속으로 강지원(전 한국마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 김소연(전 금속노조 기동전자 회장), 김순자(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울산과학대학지부장), 박종선(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정당 후보자 3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약 2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후보는 12억5000만원, 이정희 후보는 5억8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순위와는 정반대로 최근 5년간 납세액은 이 후보가 약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 후보 1억2000만원, 박 후보 1억원 순이었다.

◇재산=박근혜 후보는 총재산으로 21억810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건물가액이 19억4000만원이다. 그외에 보유 부동산은 18대 국회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시 달성군의 아파트 6000만원, 사무실 전세권 4000만원 등이다. 본인 소유 자동차는 2대로 2008년식 4498cc 에쿠스(4083만원)와 3775cc 베라크루즈(2206만원) 등이다. 금융기관 예금은 본인 명의 7816만원으로 주로 외환은행(6008만원)에 예치했다.

문재인 후보는 12억54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토지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부지 1721㎡ 1억3079만원, 주차장 땅 577㎡ 3381만원 등이고, 건물은 매곡동 자택 1억3400만원,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남항동 83㎡ 아파트가 8400만원 등 모두 3억2916만원이다. 예금은 본인 명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억1533만원, 머니마켓펀드(MMF) 1억5120만원 등이 있고, 배우자 김정숙씨 명의의 삼성생명 종신보험 불입금액이 1억1995만원에 우리은행 예금이 총 1억여원 가량 있다.

문 후보와 직계가족의 예금합계는 6억2614만원이다. 차량은 2001년식 2900cc 렉스터 1대(592만원)이다. 이밖에 재산으로는 2016년까지 소유한 자서전 '운명'의 저작권료로 3억6841만원을 신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시절 함께 몸 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 8370만원을 출자해 지분 23%를 갖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5억78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금체납 기록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는 2011년도 기준으로 62만원의 재산세를 제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원 후보는 1억4700여만원, 김소연 후보는 28만원, 김순자 후보는 242만원, 박종선 후보는 131만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병역·전과=문재인 후보는 1975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전사령부에서 2년6개월여를 복무하고 나서 만기 대체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웅씨도 2001년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여성인 박근혜 후보는 병역 의무가 없다.

전과기록의 경우 문 후보는 1975년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와 이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

/연합뉴스

## 한국공인중개사

##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작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 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 대지, 전, 답, 임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글묘, 선산, 농장, 천원주택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 20년 원조 땅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암)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균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이자공인중개사

## 팝니다.. 토지, 전답, 임야 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남나루발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기구 일반상업지역 대지 194P P당 390만원
- 장성 강화사입구 모델 및 식당(상업용지) 1480㎡, 매기 18억
- 영광군 읍, 지동차정비공장 20년간 운용장, 지동차점차장, 매기 6억
-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일(77.727㎡, 23.512㎡) 매기 1억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종공업지역 1천4백㎡, 2천5백㎡, 2만P 등(각종 공장 및 기타시설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 중심상업지역 매기 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 매기 1억3천만원
- 국산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421㎡, 대지 3400㎡
- 오정동 3층신축기자택 매기 11억, 월 595만원(전포함) 월수 6백만원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전 200坪, 창고, 공장, 주택등, 매기 1억
- 광주 우산동 4층월동 매기 16